

# 경전과 미술로 풀어낸 붓다의 생애와 8대 성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붓다, 직설과 미술

강소연 지음

“성을 나와 동산으로 행차할 때... 길가에서 밭 가는 농부를 보며/ 흙을 뒤집 때 온갖 벌레들이 벼동 질치며 죽네... 농부는 일에 시달려 몸은 여위고 흐트러진 머리에 땀을 흘리며 온몸은 흙먼지로 뒤집어썼네/ 밭 가는 소도 지쳐서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네.” (‘출성품’, ‘붓다차리타’)

붓다가 태어났던 시절 왕궁을 나왔을 때 봤던 세상의 모습이다. 그가 본 세상의 본질은 ‘고통’이었다. 밭 가는 농부 뿐 아니라 벌레들도 살려고 발버둥쳤다.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었다.

붓다는 사성제(四聖諦)의 첫 번째는 고성제(苦聖諦)라 했다. 성제(聖諦)란 진리를 일컫는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보편 타당한 사실이다.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변화라는 ‘무상’(無常)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을 여러차례 집착하니 결과는 고통이다. 한 번 형성된 것 또는 만들어진 것은 맹목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벼동 질친다.”

문화재를 전공한 30년 내공의 학자 정화(淸華) 강소연이 펴낸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은 존재의 고통을 깨부순 붓다의 생애 추적이다. 저자는 문득 문득 ‘존재의 고(苦)’에 부딪혔다.

저자는 “불교 수행(사마타와 위빠사나)을 약 15년 한 결과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경전과 불교미술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붓다의 8대 성지에서 만난 미술 유물은 저자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책은 ‘존재=고통’의 등호를 깨부순 붓다의 목적을 불교 미술과 유적을 매개로 따라가는 여정을 담았다. 여기에는 붓다가 탄생한 룸비니부터 보드가야, 사르나트, 슈리바스티, 산카사, 라지그리,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책은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유명 박물관의 소장품과 룸비니 마야테비 사원, 아소카왕 석주 등 유적과 유물을 매개로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망한다.

창공을 향해 솟아 있는 ‘아소카왕 석주’는 2000년 넘게 우뚝 서 있는 전법(傳法)을 상징한다. 붓다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아소카왕 석주다. 기원전 3세기경 세워진 돌기둥들이 현재까지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이살리의 대립정사와 라우리아 난다가르의 석주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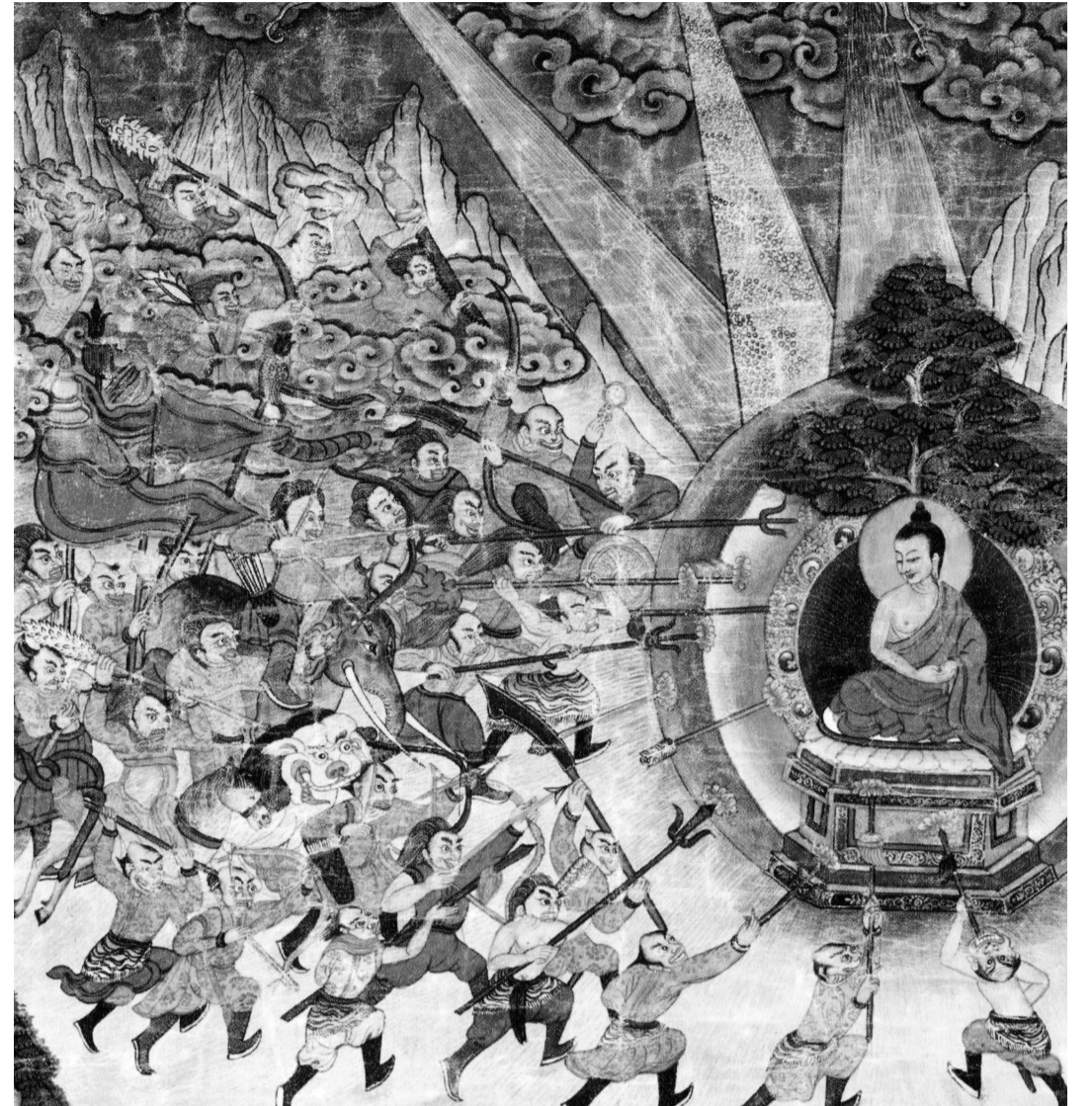
저자에 따르면 현재 확인되는 아소카왕 석주는 14개이며 회백색 사암으로 하늘을 향해 서있다. 평균 15미터이며 긴 것은 21미터이다. 특히 사르나트 아소카왕 석주는 조형적인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깨달음의 장소로 최적지는 “물이 흐르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이다. 세상의 소음과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구별된 곳이라야 오랫동안 수행이 가능하다. 수행자 고타마가 수행을 하고 진리를 득한 곳은 내란 자라 강기슭 보리수 아래였다. 물이 흐르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 이곳은 후일 ‘마하보디 사원’(대보리사)으로 불리며 성지 중 하나로 추앙을 받는다.

깨달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다’라는 무상정등각에 이른 붓다의 모습은 불교 미술의 화두다. 대각의 자리인 보드가야의 보리수 옆에 세워진 대각사의 주존조각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붓다의 형상을 묘사 사람은 ‘마하보디 대담’으로도 불리며 안으로 들어서면 황금의 붓다 존상을 만나게 된다.

석가모니 붓다가 최초로 설법한 모습인 ‘초전법륜’도 불교 미술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수행은 조형 중에서 백미는 사르나트 현지 출토 초전법륜상이다. 사르나트 고고학박물관 조각전시실에서 이 유적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책에는 붓다가 법열을 누릴 때 몸에서 6가지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 ‘라따나카라 공전’, 붓다가 첫 교단을 이룬 ‘죽림정사’ 등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불광출판사·3만5000원>/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리수 아래의 붓다를 공격하는 마군들의 날카로운 창과 칼 끝을 연꽃(깨달음의 꽃)이 막고 있다.

## 4321 풀 오스터 지음·김현우 역음

“그 여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태양은 하늘에 멈춰 있었고, 책 속의 한 장이 사라져 버렸고, 숨을 너무 크게 쉬거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한 언제나 여름일 것 같았다.”

한 사람의 생애에 빠져 요동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소설이 주는 카타르시스다. 소설 속 인물들의 과오를 나에게 투영하거나, 아름다웠던 순간을 반추해보는 등 전기적 성장소설이 주는 매력이다.

미국문학 흐름의 한 축을 형성해 온 풀 오스터가 국내에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 ‘4321’을 선보였다. 총 1552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필생의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성장 소설’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책은 주인공 아치 퍼거슨의 인생을 일대기적으로 둘러본다. 뉴저지 교외에서 유년을 보내며 읽기와 쓰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동갑내기 에이미에게 빠진다. 이어 퍼거슨은 점차 성장해가며 냉전, 케네디 암살, 인종 갈등, 흑인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 등 전후 미국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한다.

저자는 그가 살아가며 선택하지 않은 삶을 네 개의 평행세계로 사분한 뒤,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1950~60년대 미국의 정치·문화적 격동기와 개인의 삶을 한데 아우르는 장편 대서사시인 것. 다양한 갈등은 소년 퍼거슨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제목은 목차의 역순인 ‘4321’, 아마도 책을 덮으면서 전해지는 ‘삶의 처음과 끝은 하나’라는 메시지가 제목부터 암시돼 있는 듯하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드라마 속에는 퍼거슨을 둘러싼 사랑, 가족애, 인종 갈등, 민권 운동 등 여러 메시지들이 녹아 있다.

<열린책들·각 2만2000원>/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림 읽는 법 김진 지음

현대인들에게 필수 교양이 되어가는 예술.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화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건 스스로에게도 뿌듯함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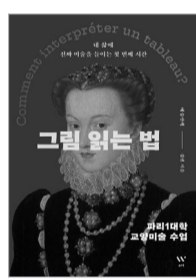
미술 전공자들도 반해버린 화제의 유튜브 채널 ‘예술산책’ 속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간됐다. 운영자 김진이 펴낸 ‘그림 읽는 법’은 저자가 직접 유학하며 몸담았던 파리1대학 예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숨겨진 작가의 뒷 이야기와 예술계 이슈를 담았다.

30대 늦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술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 유학생이었던 저자는 어느날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수업 필기 노트를 유튜브에 올리게 시작했다.

“클림트의 ‘키스’ 속 여성은 왜 점점 투명하게 사라져갈까?“, “우리는 왜 공포스러운 그림을 보고 즐거움을 느낄까?“, “위조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베이컨의 작품 속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짓고 있는 표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판테온 소르본의 예술 수업 시간에는 매일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다. 파리1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재해석해 옮긴 유튜브는 일반인은 물론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꼭 봐야 한다고 인정받은 예술 콘텐츠 채널로 급부상했다.

책은 ‘예술산책’의 콘텐츠들 중에서도 특히 나만의 그림 읽는 ‘독본’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엮었다. 몽크나 클림트 등 예술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현대미술에 관한 예술적 이슈나 작품 해설을 다뤘다. 특별부록에 ‘꼭 알아둬야 할 현대미술 아티스트 TOP25’도 실렸다.

<월북·2만2000원>/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파리의 역사 마천루 권현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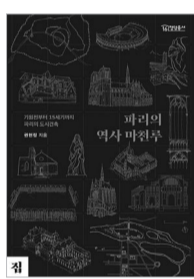
파리의 높은 건물들을 떠올려 보면 에펠탑, 몽파르나스 타워 등이 뇌리를 스친다. 2년 전 파리 13구에 들어선 초고층 빌딩 ‘투르 듀오’는 또 어떤가, 굴절된 형태로 39층 위층을 뽐내는 상등이 빌딩은 첨단화된 파리 건축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서울시 건축학교를 운영하며 한국건축가협회 청소년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현정이 파리의 역사 마천루’를 펴냈다.

저자는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1500년경 파리 역사를 들춰본다. 상드마르스 빌판, 로마식 목욕탕, 생드니 성당, 보주광장, 콩네프 다리 등을 분석하면서 건축유산들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

저자는 파리가 ‘진짜 마천루’를 숨기고 있다고 본다. 로마시대 이전의 역사부터 켜켜이 쌓인 수평 연대기적 파리역사를 수직으로 쌓으면,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된다는 것. 이 같은 사유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중·횡으로 축적된 파리 건축문화사를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책은 역사적 건축물들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기존 건축문화유산의 높은(마천루와 같은) 가치를 발굴함에 초점을 맞춘다. 성당의 철, 로마 열량의 스내 코너,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희미한 성벽의 흔적 등 미시적인 요소들을 풀어낸다. 동시에 파리의 노트르담 대 성당 같은 랜드마크도 놓치지 않는다. 노트르담 성당을 프랑스로 표기 한 뒤 직역하면 ‘파리에 있는 우리의 부인의 대성당’이라며, 프랑스로 보면 ‘우리의 부인’이 성모 마리아에 가깝다는 추론적 발상도 흥미롭다. <도서출판 집·1만8000원>/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